



새해 새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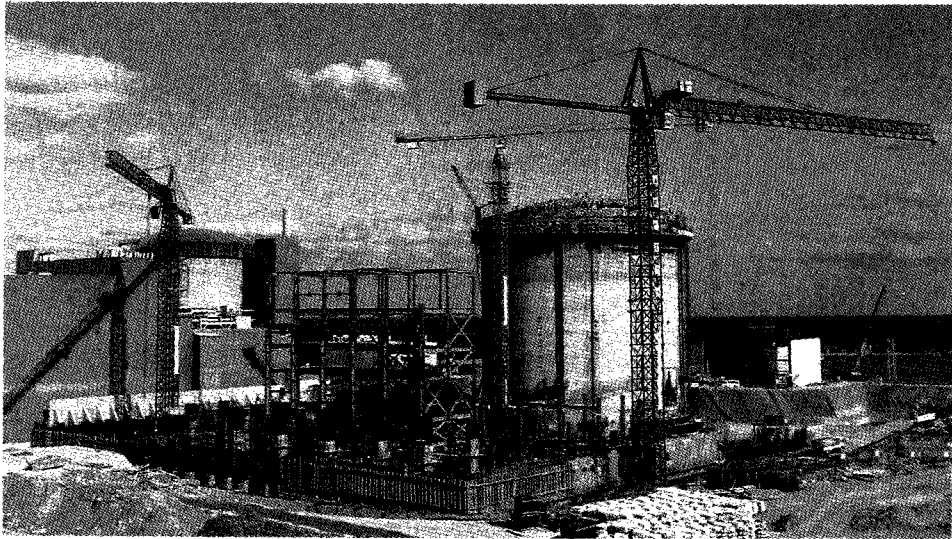
原電建設의 競争力 強化

현대건설주식회사

하는 양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다.

더구나 장기전원계획에 따르면 2006년까지 시설 용량에 있어서 40%, 실제 전력생산량의 50% 이상을 원자력이 담당하도록 되어있어 21세기에는 원자력이 주요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94년은 현대건설(주)이 우리 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건설에 참여한 지 24년이 되는 해이고 특히 현재 건설 중인 영광원자력발전소 3, 4호기는 기술자립 및 사업수행의 동시 추진을 위하여 자체적인 기술계획을 수립하여 노력하고 있음은 물론, 국내 최초로 그동안의 시공으로



월성원자력 2호기

지난해 원자력계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러시아의 핵 폐기물 해양투기, 북한의 핵사찰 거부, 크고 작은 문제가 많았었다.

이런 주변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원자력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에 틀림 없을 것이다. 93년 기준으로 우리 나라는 9기(8기의 PWR과 1기의 PHWR)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시설은 7.616MWe, 발전량은 92년에 56,530GWh이며 이는 총 발전량의 43.2%에 해당

축적된 경험을 관련회사(설계회사, 기자재제작회사 등)에 반영하는 Pre-Project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 우리 나라의 원전기술자립 목표를 공동 노력으로 경주하고 있으며 월성 2호기 건설에서는 영광과는 다른 타입인 중수로형으로 월성 1호기의 경험과 기술력으로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히 수행하고 있고 이제는 어떤 형태든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최상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발전소로 건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유 하는 데 밑거름이 되

었다.

또한 다목적연구용 원자로가 금년도 후반기 시운전을 목표로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영국에서 발행되는 원자력 전문지 NEI(Nuclear Engine Ering International) 93년 11월호에 의하면 92년 7월 1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의 연간 이용률이 가장 높은 유니트는 스위스의 베즈나우 2호기(PWR 36만4천kW)이고 우리 나라 고리 4호기(PWR 95만kW)가 2위에 랭크되었고 우리 나라 9개 발전소는 92년 평균 84.5%의 이용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우리의 높은 원자력 이용도는 경제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그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향후 현대건설은 원자력 산업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영업능력의 강화

북방 및 선진국으로 진출 또는 구 공산권 국가 및 중남미시장과 동남아시아 진출로 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환경변화 예측, 분석기능을 강화해 고객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고 영업관련 정보에 대한 종합관리로 DATA를 구축하여 외부와 연계하여 분석한다.

생산성 향상

공사관리 전산화 V.E.(Value Engineering) 시스템의 정착, 착공전 상세한 시공계획서의 작성으로 공사관리 효율을 높이고, 지역별, 업종별 우수 협력업체를 발굴하여 지도 양성하고, 경쟁력 있는 Vendor 발굴 및 하도급 입찰을 통한 책임시공제를 확립하여 우수협력업체를 관리 육성한다.

기술개발 및 교육투자

연구소 및 연구시설 완비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적 개발과제의 선정

과 기술정보의 국제적 Net-Work을 구축하고 신기술도입 개량전파,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공동의 연구개발 협조체계 구축, 개별과제별 활성화, 개발기술의 상품화로 개발기술을 활용하며, 전문 기술교육 및 Project 관리능력 배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최신기술 습득 및 기술능력 향상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조직역량의 극대화

단위 조직별 T/O관리시스템 정착으로 최적의 인원을 유지 관리하고, 책임과 권한을 하부조직 이양 확대로 조직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직무중심의 동태조직으로 전환하며 Task Force 팀제의 활성화와 부서간 정보 공유의 System화를 통해 조직역량을 극대화 한다.

품질향상

ISO 품질 System 및 사내감리제도의 정착, B/S(Before Service), A/S(After Service)체계의 확립, 품질시공에 대한 연구 및 도입으로 품질제일주의를 정착한다.

홍보능력 강화

무조건 안전하다는 홍보보다 더 과학적이고 근본적이어야 한다. 즉, 원자력발전소도 그 원리홍보 제보에 충실하여 일반인들도 반쯤 전문가가 될 정도로 지식을 주입하여 거부감과 두려움보다 이해력이 생기게 한다.

또한 우리의 기술능력을 세계에 자주 소개하고 세미나 및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여러 정보의 수집은 물론 우리를 알리는 계기로 삼는다.

이상과 같이 현대건설은 21세기로 가면서 그동안의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EC(Engineering Construction)화된 세계에 초일류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인류가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앞당겨 실현하는 개척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